

## 사회주의경쟁운동과 생산적앙양

박원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활발히 벌리는것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켜 경제강국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예비와 가능성을 남김없이 탐구동원하고 기술혁신운동과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적앙양을 일으켜야 합니다.》(《조선로동당 제7차 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사업총화보고》 단행본 55페이지)

사회주의경쟁운동은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불러일으켜 생산과 건설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일으키기 위한 대중적운동이다.

사회주의경쟁운동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사회주의경쟁운동이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무엇보다 먼저 그것이 근로자들의 자력자강의 정신을 최대로 발양시키기때문이다.

자력자강의 정신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오직 자체의 힘으로 자기 운명을 개척하여야 한다는 혁명정신이다.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할 때 무에서 유를 창조할수 있고 아무리 어려운 난관과 시련이 앞을 막아도 과감히 뚫고나갈수 있으며 최악의 조건에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할수 있다.

생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오늘의 조건에서 생산적앙양을 일으키자면 애로와 난관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뚫고 생산적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길은 오직 모든 근로자들이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휘하는데 있다.

사회주의경쟁은 집단의 위력을 가장 높이 발휘하게 하는 효과적인 방도이다. 6만t능력의 분괴압연기에서 12만t의 강재를 생산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강철기둥을 세운 천리마시대로부터 만리마시대에 창조된 수많은 기적적승리는 사회주의경쟁운동에서 발휘된 근로자들의 자력자강의 정신의 산물이라고 할수 있다.

사회주의사회에서 경쟁은 경제활동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익을 실현해나가는것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이것은 인민대중의 단결과 협조를 기본으로 하여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집단적혁신을 일으키는것을 기본요구로 내세우고있다.

집단적혁신은 근로자들이 자각성과 창발성, 집단주의사상에 기초하여 생산과 건설에서 새 기록, 새 기준을 창조하며 끊임없는 전진을 가져오기 위한 사회주의경쟁을 힘있게 벌릴 때 더욱더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게 된다.

사회주의경쟁운동을 널리 벌리면 근로인민대중의 자력자강의 정신을 높이 발양시켜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자력경쟁, 간고분투는 자강력제일주의를 구현하기 위한 투쟁방식이다. 사회주의경쟁

은 모든 근로자들이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으로 자기앞에 제기된 과제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적극 추동함으로써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게 한다.

사회주의경쟁운동이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되는것은 다음으로 그것이 생산력발전을 추동하기때문이다.

생산력의 발전은 생산을 장성시키는데서 주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자연을 정복하기 위한 생산력이 발전되어야 더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할수 있으며 더 많은 물질적부를 창조하는 과정이 곧 생산을 늘이는 과정이다.

사회주의경쟁운동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여러가지 형태로 진행될수 있다. 생산부문에서의 사회주의경쟁운동은 주로 생산을 늘이는데 기본을 두고 진행된다. 이로부터 이 부문에서의 사회주의경쟁운동은 생산력발전을 동반하게 된다. 만일 생산력발전이 없다면 사회주의경쟁에서 이길수 없으며 따라서 이 운동에 참가할 필요도 없게 된다. 그러므로 사회주의경쟁운동은 생산력의 발전을 가져오게 된다.

우선 로동도구의 발전을 가져온다.

로동도구의 발전이 없이는 생산적양양을 일으킬수 없다. 특히 지식경제시대인 오늘에 와서 발전된 로동도구가 없이는 지속적인 생산의 장성을 기대할수 없다.

사회주의경쟁운동은 생산을 장성시켜 경쟁에서 이기기 위하여 로동도구를 발전시키게 된다. 사회주의경쟁을 통하여 기계설비를 비롯한 로동도구의 현대화, 정보화, 지능화가 다그쳐지게 된다.

또한 근로자들의 과학기술기능수준을 높인다.

아무리 발전된 로동도구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과학기술기능수준이 높지 못하면 자기의 위력을 발휘할수 없다.

사회주의경쟁은 모든 근로자들이 과학기술기능수준을 높여 자기앞에 부과된 과제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적극 추동함으로써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게 한다.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힘있게 벌려 생산적양양을 일으키기 위하여서는 이 사업을 치밀하게 짜고들어야 한다.

우선 사회주의경쟁운동의 형태와 목표를 잘 규정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쟁운동의 형태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하여볼수 있다. 즉 부문간형태, 기업체간형태, 기업체내부형태가 있다.

부문간형태는 인민경제의 부문들사이에 진행되는 사회주의경쟁운동형태이다. 부문간형태는 포괄하는 범위가 크고 생산하는 제품이 다른것만큼 주로 포괄적이며 종합적인 생산지표들로 경쟁목표가 규정된다. 실례로 국내총생산액이나 국민소득, 사회순소득과 같은것을 지표로 하여 경쟁목표를 규정할수 있다. 결국 부문간형태에서는 금액지표를 리용하여 경쟁목표를 규정하는것이 합리적이다. 부문간형태는 부문사이의 균형을 보장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기업체간형태는 기업체들사이에 진행되는 사회주의경쟁운동형태이다. 이 형태는 주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들사이에 많이 진행되는것이 일반적이며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들사이에 도 이루어질수 있다.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들사이에 진행되는 사회주의경쟁운동에서는 경쟁목표를 현물량적으로 설정하는것이 중요하며 금액적으로도 설정할수 있다.

현물량적으로 설정하면 지표별계획을 넘쳐 수행할수 있고 제품의 질과 량을 다같이 높일수 있다. 서로 다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들사이에 진행될 때에는 종합지표로 경쟁 목표를 설정하되 종업원 한사람당 지표를 리용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실제로 종업원 한사람당 생산액지표, 종업원 한사람당 순생산액지표, 종업원 한사람당 국민소득지표 같은것을 경쟁목표로 규정할수 있다.

기업체내부형태는 기업체안에서 직장사이, 작업반사이, 근로자들사이에 진행되는 사회주의경쟁운동형태이다. 이때에는 주로 생산계획수행률을 경쟁목표로 설정하는것이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직장이나 작업반, 개인들이 생산한 생산물이 많은 경우 완제품이 아니라는 사정과 관련된다.

물론 여러가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는 완제품별로 직장이나 작업반을 조직할수 있다. 이 경우에는 생산계획수행률과 함께 금액지표 같은것을 경쟁목표로 리용할수 있다.

또한 경쟁요강을 현실성있게 보다 혁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경쟁요강은 사회주의경쟁운동을 위한 안내서나 같은것이다. 경쟁요강에는 사회주의경쟁운동의 기간과 대상, 경쟁조항과 그 수준, 경쟁총화형식과 방법들이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어야 한다.

경쟁기간은 이 운동을 언제까지 진행할것인가를 밝힌것으로서 단계를 설정할수도 있고 설정하지 않을수도 있다. 단계를 설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 운동의 최종목적을 달성할 때까지를 기간으로 정하면 된다. 이것은 경쟁목적이 비교적 단순하고 단기적인 시간을 필요로 할 때 주로 적용된다.

그러나 경쟁목적이 복잡하고 오랜 기간을 요구할 때에는 단계별기간을 정한다. 이 경우 단계는 몇단계로 하며 매 단계의 기간은 얼마로 하겠는가를 바로 규정하여야 한다. 단계별기간은 경쟁의 최종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유리하게 규정하여야 한다.

경쟁대상을 바로 규정하여야 한다. 경쟁대상을 바로 규정하여야 근로자들이 신심을 가지고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할수 있으며 경쟁의 목적을 성과적으로 달성할수 있다. 경쟁대상규정에서는 주로 같은 제품을 생산하는 단위들과 생산조건이 비슷한 단위들을 선택하는것이 좋다. 생산품종이 완전히 다르거나 생산조건이 엄청나게 다른 단위를 경쟁대상으로 규정하면 복잡한 문제들이 많이 제기되므로 불리할수 있다.

경쟁조항과 그 수준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생산적양양을 위한 사회주의경쟁의 최종 목적은 생산장성에 있는것만큼 경쟁조항에서 기본은 생산이다. 그러나 경쟁조항은 구체화되어야 한다. 생산을 중심으로 경쟁조항을 구체화하여야 경쟁과정에 대한 장악지도를 구체화할수 있고 총화도 실속있게 할수 있다. 구체화된 경쟁조항으로는 생산을 늘이는데 작용하는 요소들을 설정할수 있다. 설비리용률지표, 출근률지표, 원료의 국산화비중지표, 원료, 자재의 소비기준지표, 원가저하지표 등과 같은것을 경쟁조항으로 구체화하여 설정할수 있다. 경쟁조항을 설정한 다음에는 그 수준을 현실성있게 명백히 규정하여야 한다.

경쟁총화를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하겠는가 하는것도 요강에는 밝혀져있어야 한다.

또한 경쟁과정에 대한 장악지도를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경쟁운동은 경쟁을 선포하면 그것으로 다되는 운동이 아니다.

이 운동이 성과적으로 진행되자면 경쟁이 진행되는 전기간에 걸쳐 전 행정을 일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그래야 이 운동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제때에 풀어

나갈수 있다. 경쟁과정에 대한 장악지도에서는 나타나는 편향을 바로잡고 걸린 문제를 제때에 장악하여 풀어주는데 기본을 두어야 한다.

또한 사회주의경쟁운동에 대한 총화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총화사업을 잘하는것은 다음번 경쟁운동을 벌리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총화사업은 생산과제수행을 중심에 놓고 진행하면서 경쟁요강에 준하여 구체적으로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총화에서는 경쟁목표를 달성하는데서 나타난 우결함을 찾고 그 원인을 해명하는 방향에서 진행하여야 한다.

총화사업에서는 평가사업을 잘하는것이 중요하다. 여기서는 정치적평가를 기본으로 하면서 물질적평가를 잘 배합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정치적평가는 정치도덕적자극을 통하여 실현되며 물질적평가는 물질적자극을 수단으로 하여 진행된다.

정치도덕적자극과 물질적자극을 옹게 결합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경쟁에서 우승한 단위들에는 정치도덕적자극을 더 크게 우선적으로 하면서 물질적자극도 다른 단위에 비하여 더 많이 하여야 한다.

우리는 사회주의경쟁운동을 활발히 벌려 생산적앙양을 일으켜나감으로써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 땅우에 부강번영하는 사회주의강국을 반드시 일떠세워야 할것이다.